

# 도내 유망 '허리기업' 육성 박차

### 전북도, '글로벌 강소기업' 3개사·'도 선도기업' 22개사 등 선정 지정서 수여... 경쟁력 향상 지원

전북도가 산업기반이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들을 선택과 집중 방식의 지원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단계별 성장사다리 구축에 나섰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25개사를 선정해 '글로벌 강소기업' 3개사, '전라북도 선도기업' 22개사에 대한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는 도내 유망 허리기업들을 집중 지원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허든 챔피언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한국형 허든챔피언 육성 정책'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한 이 사업은 매출액 100억원에서 1000억원 미만,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10%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평균 1%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8% 이상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는 이번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주)네패스신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싱그린에프에스, 우성공업(주)를 선정하고 해외마케팅 프로그램, R&D, 지역자원지원프로그램을 위해 기업당 3년간 최대 8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점지원 중인 '월드클래스 300' 사업에 선정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 추진된 전라북도 선도기



전북도는 8일 세계적인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강소기업' 3개사와 '전북도 선도기업' 22개사를 대상으로 지정서를 수여했다.

업 육성사업은 성장가능성이 유망한 도내 중소기업 중 매출액 50억원 이상(단, ICT, 농·생명 업종은 25억 이상), 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보유 기업,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우수한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22개사의 선도기업은

자동차, 농식품, 탄소, 뿌리산업 등의 분야로 기존 선도기업 60개사와 함께 향후 5년동안 도비 250여억원을 투입해 기술관리(R&D), 시장관리(마케팅), 조직관리(컨설팅), 인력관리, 성장관리 등을 지원 받게 된다.

앞서 도는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월드클래스300기업 1개사, 글로벌 강소기업 6개사를 배출하는 등 한국

형 허든챔피언 기업 발굴에 성과를 있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우수한 기업들을 꾸준히 발굴해 성장단계별로 집중지원하고 중소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허리기업들을 육성하겠다"면서 "전북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 생활체육 '왕중왕전' 임실 개최

### 10월 8~9일에... 임실N치즈축제와 연계

전북도 생활체육인들의 대축제인 2016년 동호인리그 왕중왕전과 에어로빅스체조 경연대회가 올 가을 임실에서 개최된다.

오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주최하고 임실군체육회(회장 심민)가 주관하는 대회로서, 생활체육의 백미인 왕중왕전에 1,800개 팀 5만여명이 본인이 소속된 클럽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며, 지난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열리는 리그전을 통해 최종 본선에 오른 팀들이 참여한다.

왕중왕 본선은 정식종목인 축구, 야구 등 8개 종목, 시범종목 당구,

볼링 2개, 시연종목 파크골프 총 11개 종목에 319팀 4,500명이 임실공설운동장, 선진강생활체육공원 등 임실군 일원에서 종목별로 리그 또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회를 치러 최종 한 팀이 2016년을 결산하는 최종 왕중왕에 오르게 된다.

특히, 군은 동호인리그 왕중왕전과 에어로빅스체조 경연대회 시기에 맞춰 군의 대표축제인 임실N치즈축제(10.6~10.9)와 연계해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생활체육인들에게 다양한 체험행사와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과 체육이 하나 되는 축제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전북자동차기술원 '일자리 맞춤형 교육' 효과

### 매년 20여명 약 3개월 기술교육... 지난 6년간 취업률 72%

전북자동차기술원(원장 이성수)의 '일자리 맞춤형 교육'이 지역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는 데 특출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부터 전북자동차기술원은 매년 취업준비생 20여명을 선발해 약 3개월간 기술교육 훈련을 한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교육은 올해 금형설계와 가공, 3D 프린터 활용 금형제작 실습 등의 직무교육과 직장인 기초소양교육, 연구개발 기획, 직무수습 등 사례중심의 현장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 중이다.

또한 자체 보유한 전문인력과 시설, 장비를 이용하고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해 교육생의 전공, 나이, 경력 등에 따른 개인별 맞춤 지도로 교육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취업에 성공한 선배교육생, 지역 내 기업체 대표 등을 초청해 생생한 경험담과 성공준비전략을 공유하는 대화의 시간은 교육생에게 공감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북자동차기술원은 지난 6년간 양성한 전문인력 120명 중 86명이 취업해 72%라는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정영수 기자

## 군산시, 국비확보 정책협의회

군산시가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국비확보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로 힘을 한데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8일 군산군대문화의 중심지인 월명동주민센터에서 '군산시·국회의원·시의회 의장단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시장전반에 대한 발전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시의회의장단, 시장,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 국비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는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시의회 의장단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과 적극 지원할 것을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 일본계 기업들 새만금산단 관심 증가

### 새만금청, 한국미쓰비시상사 임직원 현장 초청 투자 환경 소개

도레이 첨단소재 새만금공장이 지난 6일 준공식을 가진 가운데 새만금산업단지에 대한 일본계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8일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한국미쓰비시상사의 후지요시우코 사장 등 임직원들을 새만금 현장으로 초청해 새만금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미쓰비시상사는 일본의 미쓰비시상사가 출자한 한국법인으로, 후지요시우코 사장은 주한 일본기업

420개사가 소속된 한국 최대의 일본계 단체인 서울재팬클럽(SJC)의 부이사장을 역임하고 있어 주한 일본기업들과 폭넓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날 새만금청은 한국미쓰비시상사 방문단에게 중국 주요도시와의 접근성, 자연재해 안전지역, 안정적 전력수급 등 새만금의 강점을 소개했다.

특히, 2014년 6월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새만금산업단지(2015년 10월 한중산업협력단지)로 선정되면서 금융, 통관, 외국인채용 등 다양한 분

야에서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일본의 도레이첨단소재(주) 새만금 공장이 준공되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새만금에 대한 일본계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3.0 취지를 살려, 일본계 대형 사·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우수 일본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 IT기반 예비창업자·기업 모집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29일까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식서비스 분야 초기 창업자의 성공을 돕기 위한 '2016년도 스마트창작터' 교육생(창업팀)을 모집 한다.

모집 대상은 앱·웹, 문화콘텐츠 융합, 사물인터넷(IoT), ICT융합, VR 등 IT기반 지식서비스 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다.

스마트창작터사업에서는 온·오프라인 창업실습교육, 해커톤(아이디어톤), 창업일반, 기술교육을 제공하며 비즈니스 모델 수립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와의 1:1 멘토링을 지원한다. 수료자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창업팀을 선발해 사업화 자금 최대 5000만원과 사무공간,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참가신청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2016년 스마트창작터 교육생(창업팀) 모집 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영수 기자

다. 창업일반, 기술교육을 제공하며 비즈니스 모델 수립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와의 1:1 멘토링을 지원한다. 수료자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창업팀을 선발해 사업화 자금 최대 5000만원과 사무공간,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참가신청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2016년 스마트창작터 교육생(창업팀) 모집 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영수 기자

**여름방학 스피치 특강 모집**  
**스피치 · 웅변 · 면접 · 웃음치료 · 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옥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의자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 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 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출)  
 ③ 김양옥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 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 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 한국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